

제 22 시의회 선거구

Danielle M. De Stefano (C, I)

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대니엘 드 스테파노입니다. 저는 아스토리아와 롱아일랜드시티, 이스트 엘머스트, 잭슨하이츠 그리고 우드사이드 일부를 포함하는 제 22 선거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고자 이 경선에 출마했습니다. 저는 독립후보로서 보수당의 지지를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우리 선거구 유권자들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믿기에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. 저는 네 세대를 이어 내려온 아스토리아 주민이며 제 남편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 온 그리스계 이민자 가정의 자녀입니다.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, 또 제 22 선거구 주민들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믿는 이슈는 공공안전, 노인 주거시설 그리고 근로장학 프로그램입니다. 저는 우리의 삶의 질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할 것입니다. 저는 시의원직을 잘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헌신과 끈기를 갖고 있습니다. 제가 말하려고 하는 직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.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.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여러 이슈에 있어 저의 입장을 검토해 주십시오. 저는 엄마이자 가정주부, 코치 그리고 선도자입니다. 제 모든 힘을 다해 제 22 선거구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

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.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